

믿음과 선행? 혹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김헌수 교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노동은 사람됨이 실현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때로는 노동의 대가를 경제적으로 환산하기도 하지만, 사실 노동의 의미는 경제적인 가치 이상이다. 자기의 삶을 연소하여 얻은 재물을 빼앗기거나 착취를 당하면 자기의 인생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도 사람의 노동이 갖는 가치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네가 네 손이 일한 대로 먹을 것이라”(시 128:2) 하는 복이 선언되는 것도 사람의 노동이 갖는 의미를 전제하고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처럼 사람의 노동이 의미를 지닌다면, 사람의 착한 행위는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에서 강조하여 가르치고, 또한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선행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면, ‘사람의 선행’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착한 일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더 방자히 악을 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주일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24주일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간다.

사람의 선행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무가치한가? (62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었다. 펠라기우스(Pelagius, 약 360-418)라는 영국 수도승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무기력한 생활을 바꾸려고 나름대로 논리를 구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에는 죄가 없으며,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죄악 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따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



펠라기우스 (약 360-418)



아우구스티누스 (354-430)

다. 결국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있는 셈인 것이다.

펠라기우스가 “좋은 의도”(?)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더라도, 그의 주장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죄가 사람의 본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만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선생(354-430)은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바르게 비판하였고, 이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418년).

비록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이후의 교회사에서는 다른 변형된 가르침들이 계속 등장하였고 이것을 가리켜 ‘반(半) 펠라기우스주의’라 부른다. 이들은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완전한 의를 주장하지는 않고, 사람이 최악 중에 태어난 것과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사람이 의를 행하는 일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의를 이루셨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부분이고 거기에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덧붙여야 그것이 완전하게 된다고 보았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2문에서는 사람의 선행을 잣대로 삼아 질문한다. 사람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시면 혹시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62문의 대답은 그러한 우리의 잣대를 치우고 하나님의 잣대를 제시한다. 잘못된 잣대를 사용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선행을 논하는 우리의 상대적인 잣대를 치워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를 제시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란, 비유하자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 놓고서 볼트 너트 서너 개를 만든 격’인 것이다.

상급은 어떻게 되는가? (63문)

이처럼 62문에서 사람의 상대적인 잣대를 내세우는 우문(愚問)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현답(賢答)을 했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좀처럼 행위를 내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성경의 교훈을 들고 나와서 질문한다. 성경에는 사람이 일한 대로



카르타고 공의회 (418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賞)을 주신다는 약속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이다. 성경에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상 주심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핍박 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고(마 5:12) 은밀한 선행이나 기도도 친히 갚아 주신다고 하셨다(마 6:1-4, 6, 18).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면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가르치고(히 11:26),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이들에게는 주께서 '유업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골 3:24).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

은 하나님 나라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 받은 사람이 받는 상은 천국이고(마 5:10, 12), 복음을 위하여 핍박 받은 사람은 내세에 영생을 얻으며(막 10:30),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긴 종은 유업의 상을 얻는다(골 3:24).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베푸시는 햇빛과 공기도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상급은 사람의 선행이나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여서 은혜의 선물로 상을 받는데, 종종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한 채 그저 경쟁적인 심리로 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상급(賞給)이라는 말은 상을 준다는 말인데, 상급(賞級)으로 이해하여 상에 차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경쟁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한 태도는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의 상 주심에는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어서 서로를 경쟁시키시려는 의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더욱 잘 지키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따라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우리는, 상을 받더라도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언약의 말씀도 주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을 지킬 힘을 주시는 분도 성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 그것을 오직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를 드릴 뿐이다.

상급에 대한 교훈은 이처럼 종종 여러모로 오해를 받는다. 자칫하면 은혜의 복음을 손상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상 주심에 대하여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자기의 소유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

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심을 약속하시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상 주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이다.¹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선행에 대하여 상 주심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우리 육신의 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려는 데에 있으며, 결코 우리의 마음을 허영으로 교만하게 만드시려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상급을 근거로 행위의 공로를 유추하거나, 행위와 상급을 비교해서 재어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아주 멀리 벗어난 사람이다.²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는가? (64문)

64문: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이 착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면, 이러한 교훈으로 인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오히려 사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트렌트 종교회의(1545-63)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선언한 것

도, 개신교의 이러한 교훈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위험한 교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고 로마교회에서는 ‘은혜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선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상을 강조하여 가르친 것이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이다. 선행을 했는데도 보상이 없다면, 사람은 게으르게 되고 맘껏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유추하게 되는 생각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권선징악을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가르친다면, 결국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한다. 그렇지만 이 질문도 여전히 ‘땅에서 나온’ 질문이다. 그렇기에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론은 이미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직면한 질문이기도 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욱 거하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반론이 있었던 것이다(참조. 롬 3:8; 5:20; 6:1).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신자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새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가르쳤다(롬 6:1-11). 따라서 신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자의 삶을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신자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었고, 따라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다(요 15:5; 마 7:18).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에서는 신자의 선행을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을 때에 자연스런 열매로 맺히는 것이다.

1. C. Bijl, Wat het geloof verwacht, p. 152.

2. 칼빈, 『기독교강요』, 3권 18장 4절.



트렌트 공의회 (1545-63)

‘믿음과 선행’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

세상의 관점에서는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이다. 선행을 했는데도 보상이 없다면, 사람은 게으르게 되고 맘껏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얼마든지 유추하게 되는 생각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권선징악을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가르친다면, 결국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한다. 그렇지만 이 질문도 여전히 ‘땅에서 나온’ 질문이다. 그렇기에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론은 이미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직면한 질문이기도 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욱 거하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반론이 있었던 것이다(참조. 롬 3:8; 5:20; 6:1).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신자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새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가르쳤다(롬 6:1-11). 따라서 신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

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자의 삶을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신자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었고, 따라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다(요 15:5; 마 7:18).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에서는 신자의 선행을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을 때에 자연스런 열매로 맺히는 것이다.

* 지난 2년동안 김현수 교수님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연재칼럼을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